



## 간호대학생에게 제공한 유방자가검진 교육이 지식, 자기효능감 및 수행에 미치는 효과\*

양 영 희<sup>1)</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유방암은 2001년 이후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여성의 주요 암이 되었다. 통계청에 의하면 여성 유방암의 발생자 수는 1996년 4096명으로 3위이었으나 2002년 731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여성암 발생율중 1위를 차지하였다(통계청 <http://www.kosis.kr>). 이러한 한국 여성의 유방암 증가를 세계 평균과 비교할 때 20배가 더 높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0/08/2007\\_100800022.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0/08/2007_100800022.html)). 1996년에서 2006년 동안 10년 사이를 비교하였을 때 유방암의 사망률 증가 순위에 있어서도 4위를 차지하였다(통계청).

35세 미만의 젊은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에 있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4-6%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나 우리나라에서는 13-24%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한다(강선희, 전형진, 2007). 이들 35세 미만 유방암 환자는 35세 이상 유방암환자보다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보고되었다(Ahn et al., 2007). 또한 진단시 병기는 예후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유방암의 진단시 병기는 2기와 3기 사이가 75.3%(박지선, 성동욱, 윤엽, 2004)로서 미국과 비교할 때 더 늦게 발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젊은 여성들을 위한 유방암 예방이나 조기 발견 대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유방암을 예방하는 정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조기 검진의 중요성에 가치를 더 두어야 한다. 유방자가검진은 작은

종양 덩어리를 찾아내는데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으나, 자가검진 행위는 여성이 유방암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자신의 유방 변화에 민감해지는데 도움이 된다(유근영, 노동영, 이은숙, 2002). 유방암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미국 암 협회([www.cancer.org](http://www.cancer.org))에서는 20세부터 유방 자가검진을 매달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유방조기검진 권장안에서 30세부터 매달 유방 자가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어(유근영 등, 2002) 유방암 발병연령이 더 낮은 우리나라에서 유방자가검진 권장 연령은 더 높다는 모순점이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유방자가검진을 수행하는 율은 5-8% 정도로(정복례, 서순림, 1997)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고 일반 대중들은 유방자가검진 방법에 대한 정보를 주로 대중매체에서 얻고 있으나(김은경, 2003; 장희정 등, 2002; 정복례, 서순림, 1997) 대중매체보다는 간호사에게 유방자가검진 교육을 받은 경우 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다고(장희정 등, 2002) 하였다.

그러나 일반 대상자들이 간호사들에게 유방자가검진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있다는 보고는 찾을 수 없었으며 간호사들 스스로의 유방자가검진 실천율도 저조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간호사들의 유방자가검진 지식은 충분하지 않았고 유방자가검진 실천율도 일반인보다는 조금 높았으나 규칙적이지 않아 지난 6개월간 1회 이상 등으로 보고하고 있어(김은경, 2003; 태영숙, 김중선 2003) 정기적인 실천을 하는 경우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졸업예정자인 간호대학생에게 유방자가검진 실천 정도를 조사한 박경애(1997)는 대상자의 30.4%가 실천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규칙성이나 정확성은 조

주요어 : 유방자가검진, 자기 효능감, 간호학생

\* 본 연구는 2006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1)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hanul96@dankook.ac.kr)

사하지 않았다. 유방자가검진의 조기발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매달 1회씩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수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Budden(1998)과 Powe, Underwood, Canales 및 Finnie (2005)는 간호사들이 유방자가검진 실천율도 높이고 대상자들에게도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학 교과과정내에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경애(1997)의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유방자가검진의 실천과 지식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자가검진을 조사한 연구들에서도(장희정 등, 2004; 조홍숙, 2004) 이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유방자가검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식 외에 다른 요소의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건강행위 실천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개념으로 자기 효능감이 있다. 자기 효능감이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 행동의 선택, 수행 그리고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77). 유방자가검진에 관련된 선행연구(김은경, 2003; 최경옥, 서연옥, 1998)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유방자가검진 실천율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좋은 예측인자로 주장되고 있다(Luszczynska & Schwarzer, 2003).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유방자가검진 교육의 효과를 연구한 박소미, 허혜경, 박미정 및 송희영(2006)은 연구결과 지식, 효능감, 수행능력 모두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유방자가검진을 수행한 직후 효과를 측정하였으므로 교육의 지속적 효과를 측정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유방자가검진 교육 관련 선행연구는 매우 적었으며 교육의 장기효과를 보고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간호대학생은 대다수가 20대의 여성이면서 졸업후 건강 교육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미래의 간호사이이다. 유방암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간호대학생들에게 유방자가검진을 능숙하게 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학생 자신은 물론 미래의 간호대상자들의 유방암 조기 발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에게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 유방자가검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유방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수행 정도로 보고자 한다.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유방자가검진 교육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 유방자가검진 교육이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대한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 유방자가검진 교육이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가설**

- 유방자가검진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과 유방암과 유방자가검진 지식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유방자가검진을 교육받은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과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유방자가검진을 교육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과 유방자가검진 수행횟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3개월 간격으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험군에게만 유방암과 유방자가검진 교육을 실습과 병행하여 제공하였다<Figure 1>.

	Pretest	Treatment	Posttest
Experimental	O <sub>1</sub>	X	O <sub>2</sub>
Control	O <sub>3</sub>		O <sub>4</sub>

O: Knowledge, Self-efficacy, frequency  
X: Breast self examination, education program

<Figure 1> Research design

**연구 대상**

충남에 위치한 두 개의 4년제 간호학과를 편의 표집하였고 실험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 개 학교의 학생은 실험군으로 다른 한 개 학교의 학생은 대조군으로 배정하였다. 본 연구수행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large effect(d=.80), 유의수준 α=0.05, 80%의 검정력을 기준으로 Cohen(1977)의 표본크기 계산법에 따라 표본크기를 그룹당 20명으로 하였다. 각 학교에서 3학년 10명과 4학년 10명을 총 20명을 다시 편의 표집하였으며 응답이 부실한 대조군 2명을 제외하여서 대상자는 모두 38명이 되었다. 대상자들은 연구시점 이전에 모두 각 학교 교과과정에 의하여 유방자가검진 교육을 이미 받았다.

**연구 도구**

- 일반적 특성 : 나이, 초경나이, 생리 규칙성, 유방암 가족력, 유방질환의 과거력과 자가검진 수행 여부 등 6문항을 포함하였다.
- 유방자가검진 지식 : 최경옥(1996)의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1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주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 자기 효능감 : Champion과 Scott(1997)의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10문항의 5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전 조사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75$ , 사후 조사에서는 Cronbach's  $\alpha=0.91$ 로 나타났다.
- 유방자가검진 수행빈도 : 사후 측정시에 지난 3개월 동안 유방자가검진 수행 횟수를 응답하게 하였다.

### 실험처치 : 유방 자가검진 교육 프로그램

유방자가검진 교육 프로그램은 지식과 실기교육 및 기억상기전략으로 구성하였다. 기억상기 전략은 교육 후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유방자가검진 빈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선행 연구(Agars, & McMurray, 1993)결과를 근거로 하였다. 지식과 실기교육은 슬라이드 교육, 유방의 몽우리의 촉각 경험 실습 및,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실습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슬라이드 교육 내용은 유방암의 통계, 위험요인, 유방암 증상과 유방암 정기검진 종류와 중요성, 자가검진 방법이 포함되었다. 유방의 몽우리 촉각 경험 실습은 정상 유방과 유방암 모형(MLS-1, the Mammatech Corporation 제작, 미국)을 이용하였다. 유방암 모형은 내부에 1 cm 이하의 결절들이 4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투명한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정상 피부색의 천으로 덮인 유방 모형으로 되어 있어서 대상자들이 몽우리를 찾아 느껴보게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실습은 실험군에게 속옷을 벗고 환의만 입게 한 후에 전신 거울 앞에서 앉거나 선 자세로 교육받은 순서대로 자신의 유방을 세 손가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세심하게 눌러보도록 하였다. 이때 유방자가검진 방법을 기록한 슬라이드를 띄워놓아 참고하게 하였고 유방암 모형에서 촉진한 결절 느낌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유방을 촉진하게 하였다. 기억상기 전략으로는 3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먼저 교육 종료 후 첫 주 동안은 유방자가검진 방법을 익숙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매일 실시하게 하고 실시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주계획표를 준비하여 주었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유방자가검진 수행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 후 3회 이상의 생리 예정일과 가능한 유방자가검진 수행 일일(교육 후 3개월에서 4개월 소요되었음)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든 달력과 유방자가검진 방법 설명서를 나누어 주었다. 자가검진방법 설명서는 욕실에 걸어놓게 하였고, 자가검진예정

일을 표시한 달력은 책상이나 욕실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전략으로 대상자들의 생리 예정일과 연락처를 기록하여 매월 해당일에 전화를 하여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켜 주었다. 전화 연락은 간호학 석사 졸업자인 연구원이 하여 연구자의 특성이 대상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이상의 실험중재는 실험군에게만 제공하였다.

### 자료 수집 방법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에 참여 동의를 얻은 후에 대조군에게는 3개월 전후로 일반적 특성, 유방암과 유방자가검진 지식과 자기효능감을 설문지를 이용하여 2회 측정하였다. 유방자가검진 교육 중재 효과 측정 시기는 선행 연구(최경옥, 서연옥, 1998; 서연옥, 2003)를 기반으로 하여 3개월 후로 정하였다. 유방 자가검진 시행 빈도는 3개월 후에만 조사하였다. 실험군 20명에게도 대조군과 동일하게 3개월 간격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변수 측정을 하였으며 사전 측정 후 바로 유방 자가검진 교육과 실습을 하였다.

### 자료 분석 방법

일반적 특성은 Chi-square,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전후 유방암과 유방자가검진 지식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실험 후 유방자가검진 수행빈도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전체 대상자의 나이는 20-24세 사이이며 평균 22.2세( $\pm 1.05$ )이었다. 초경연령은 11-17세이며 평균 초경연령은 13.6세( $\pm 1.31$ )이었다. 50%의 대상자는 월경이 규칙적이라고 하였다.

유방암에 대한 가족력은 대조군에서 한명이 있었고 대상자와의 관계는 어머니이었다. 유방질환력은 3명이 있었는데, 질 환명은 지방종, 유방섬유선종 및 유방통 이었다. 유방자가검진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47.4%(18명)이었으며 매달 실시하는 경우는 1명이었다.

### 연구 변수와 동질성 검증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Total(N=38)	Experimental (n=20)	Control (n=18)	t (p)
		Mean (SD)	Mean (SD)	Mean(SD)	
Age		22.2(1.05)	22.2( .89)	22.3(1.23)	- .225(.823)
Menarche age		13.6(1.31)	13.3(1.38)	13.9(1.16)	-1.548(.130)
		n(%)	n(%)	n(%)	$\chi^2$ (p)
Regularity of menstruation	Regular	19(50.0)	8(40.0)	11(61.1)	1.689(.330)
	Irregular	19(50.0)	12(60.0)	7(38.9)	
Family history of breast cancer	Yes	1( 2.6)	0	1( 5.6)	1.141(.474)
	No	37(97.4)	20(100.0)	17(94.4)	
Past history of breast disease	Yes	3( 7.9)	1( 5.0)	2(11.2)	3.161(.368)
	No	35(92.1)	19(95.0)	16(88.8)	
BSE performance	Yes	18(47.4)	10(50.0)	8(44.4)	.117(.756)
	No	20(52.6)	10(50.0)	10(55.6)	

\*BSE : breast self-examination

연구 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결과 유방압과 유방 자가검진에 관한 지식과 자기 효능감 모두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유방압과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은 16점 만점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이 각 12.05점과 11.89점이었으며 정답율은 75.3%와 74.3% 이었다. 자기효능감은 5점 척도중 실험군과 대조군이 각 3.37점과 3.22점으로서 효능감이 높은 편이었다.

<Table 2> Homogeneous tests for knowledge and self-efficacy at the pretest

	Experimental (n=20)	Control (n=18)	t(p)
	Mean(SD)	Mean(SD)	
Knowledge	12.05(1.64)	11.89(1.41)	.323(.748)
Self efficacy	3.37( .42)	3.22( .67)	.850(.401)

가설 검정

- 가설 1: 유방자가검진 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유방자가검진 지식이 12.85점이었고 대조군의 유방자가검진 지식은 12.22점으로 두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가설 1은 기각되었다<Table 3>.
- 가설 2: 유방자가검진 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자기효능감은 3.82점이었고, 대조군의 자기효능감은 3.31점이었으며 두군 평균값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t=2.951, p=.006)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3>.
- 가설 3: 유방자가검진 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유방자가검진 수행횟수는 3달동안 2.35회이었고 대조군의 유방자가검진 수행횟수는 3달동안 0.79회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t=4.731, p=.000) 가설 3은 지지되었다<Table 3>.

<Table 3> BSE Education effects on knowledge, self-efficacy, and frequencies after 3 months of the completion of the education program

	Experimental (n=20)	Control (n=18)	t(p)
	Mean(SD)	Mean(SD)	
Knowledge	12.85(1.35)	12.22(1.22)	1.501(.142)
Self efficacy	3.82( .39)	3.31( .65)	2.951(.006)
Frequencies	2.35( .93)	.79(1.11)	4.731(.000)

\* BSE : breast self-examination

논 의

본 연구 대상자들의 초경 연령은 13.6세로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사이이었으며 반수 정도가 규칙적인 월경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평균 초경 연령은 13.2세로 보고되어(이경혜 등, 1999) 본 연구 대상자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Yoo 등(2002)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역학 조사에서 14세 이전에 초경을 한 여성은 15세 이후에 초경을 한 여성에 비하여 유방암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여서 젊은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유방암 발생율이 여성암중 1위이나 본 연구 대상자들에게 가족중 유방암 경력자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유방자가검진 지식점수는 16점 만점에서 사전 측정값이 12.05점, 11.89점이었고, 사후 측정에서는 12.85점(정답율 80%)과 12.22점(정답율 76.3%)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경애(1997)의 연구에서도 유방자가검진 지식의 정답율이 79%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의 성적과 유사하였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 측정한 중년여성의 유방자가검진 지식점수(양영희, 2007)는 정답율이 64%에서 72% 수준으로 간호대학생의 점수보다 낮았다.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은 사전 사후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대상자들은 간호학 전공의 학생으로서 유방자가검진 교육을 주로 학교의 교과과정을 통해 이미 이수 받았으므로 본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상자의 지식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유방자가검진을 해보았다는 응답은 47.4%였는데 매달 하는 경우는 1명뿐이어서 실제 제대로 실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박경애(1997)의 연구에서는 유방자가검진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0.4%였는데, 매달 수행인지는 서술되지 않았다.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유방자가검진 수행정도가 높았다. Budden(1995)는 간호대학 여학생 65명(평균 19세) 대상의 연구에서 99%는 지난 12개월내에 유방자가검진을 실천하였고, 44%는 규칙적으로 하였으며 27%는 지난 1년동안 9-12번 하였다고 했다. Budden(1999)은 호주 간호대학 1학년생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3 정도 학생이 매달 유방자가검진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대상자들은 교육 전에도 유방자가검진 이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5점 만점에서 3.37점과 3.22점으로 측정되어서 보통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건강행위를 지속하게 하는 개념으로 자기 효능감을 이용하였는데, 사전 측정의 결과를 보면 20대 젊은 간호대학생들에게 자기효능감은 유방자가검진의 실천으로 연결되지는 않은 것 같았다. 박경애(1997)의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의 반정도는 유방자가검진을 하지 않은 이유가 '귀찮아서'와 '생각이 없어서' 이었다. 이는 인생에서 최대로 건강한 시기에 있는 간호대학생들은 병이란 자신과 관련이 없는 먼나라 문제로 여기고 건강행위 실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자기효능감이 더 강해졌고 3달동안 거의 월 1회씩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으나 대조군은 3달동안 유방자가검진 수행이 평균 1회도 되지 않았다. 실험군이 3달 동안 유방자가검진을 규칙적으로 잘 수행한 것은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이었으나 한편으로는 본 연구자의 상기 전략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방자가검진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큰 이유로 검진시기를 잊어버리거나(서연옥, 2003; 조홍숙, 2004)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서순림, 정복례, 2000)이라고 하였다. 검진시기를 잊어버려서 유방자가검진을 불규칙하게 하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Budden, 1995) 주된 장애요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방암 발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대부터 유방암 예방과 조기 진단위한 건강행위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시작해야 한다. 유방자가검진은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배우기 쉬운 암 조기발견 방법이다. 꾸준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면 자신의 유방조직에 익숙해지게 되며, 유방의 작은 변화도 빨리 발견하여 질병의 조기진단을 가

능하게 해준다. 20대인 간호대학생들은 유방자가검진 교육에 가장 이상적인 대상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교수인 연구자의 신분이 학생인 대상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점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복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 환경을 분명히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이혜경, 양영희, 구미옥, 은영, 2005)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을 가능한 자세히 기술하도록 노력하였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제공한 유방자가검진 교육 프로그램이 유방자가검진 지식, 자기 효능감, 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이용하였으며 2개의 간호학과에서 3학년과 4학년 학생 각 20명씩 총 40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실험군 20명, 대조군 20명으로 나누어 실험군에게는 유방자가검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3개월 시차를 두고 교육 전후 유방자가검진 지식, 자기효능감, 수행정도를 측정하였다. BSE 지식은 최경옥(1996)의 도구를 이용하였고 BSE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Champion과 Scott(1997)의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BSE 수행정도는 수행의 규칙성과 수행횟수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유방자가검진 지식, 자기효능감은 동질하였다. 가설 검정결과 유방자가검진 지식은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기각되었다.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수행회수는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아서 가설 2와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방자가검진 수행을 잊지 않고 하도록 여러 방법으로 기억을 상기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 연구 분야로 유방자가검진의 지속적 수행의 장애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자가효능감과 수행빈도를 상승시키는 요인과 변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교육 분야에서는 졸업 후 실무 현장에서 대상자들에게 유방자가검진을 교육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기관에서는 유방자가검진 실기 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 실무현장에서는 유방자가검진 교육을 제공하는 간호사에게 근무 가점제를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유방자가검진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선희, 전형진 (2007). 35세 이하 젊은 연령 유방암 환자의 예후: 36세 이상군과의 비교. *대한외과학회지*, 72(2), 101-106.

김은경 (2003). *일반여성과 간호사의 유방자가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산.

박경애 (1997). 일부 간호학생의 유방자가검진에 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8(2), 381-391.

박소미, 허혜경, 박미정, 송희영 (2006). 행위중심적 자가검진 교육이 간호학생의 지식, 자기효능감 및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1), 47-52.

박지선, 성동욱, 윤엽 (2004). 유방암의 진단적 영상과 그 역할. *경희의학*, 20(2), 97-103.

서순림, 정복례 (2000). 유방자가검진 행위 촉진요인. *경북대 간호과학회지*, 4(1), 27-41.

서연옥 (2003). 유방자가검진 교육 후 태도와 지식, 실천의 변화. *성인간호학회지*, 15(1), 5-13.

양영희 (2007). 중년여성의 유방자가검진 교육이 유방자가검진 지식, 자기효능감 및 수행에 미치는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14(2), 189-197.

유근영, 노동영, 이은숙 (2002). 유방암의 조기검진. *대한의사협회지*, 45(8), 992-1004.

이경혜, 박영주, 변수자, 유은광, 이영숙, 이혜경, 정은순, 조옥순, 최의순, 한혜실 (1999). *여성건강간호학*. 서울: 현문사.

이혜경, 양영희, 구미옥, 은영 (2005). *간호연구개론(개정 3판)*. 서울: 현문사.

장희정, 박정숙, 오윤정, 최영희, 박은아, 및 정추자(2002). 한국 중년 여성들의 유방자가검진에 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정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4), 719-731.

정복례, 서순림 (1997). 유방암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안. *성인간호학회지*, 9(1), 136-147.

조홍숙 (2004). *중년 여성의 유방암 위험도와 유방자가검진 지식 및 수행여부와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천안.

최경옥 (1996). *유방자가검진 교육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교육의 효과*.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울.

최경옥, 서연옥 (1998). 유방자가검진교육이 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28(3), 718-28.

태연숙, 김중선 (2003). 간호사의 유방자가검진 실천 예측요인. *중앙간호학회지*, 3(2), 122-132.

통계청 (2007) <http://www.kosis.kr>

Agars, J., & McMurray, A. (1993). An evaluation of comparative strategies for teaching breast self-examination. *J Advanced Nurs*, 18, 1595-1603.

Ahn, S. H., Son, B. H., Kim, S. W., Kim, S. I., Jeong, J., Ko, S. S., & Han, W. (2007). Poor outcome of hormone receptor-positive breast cancer at very young age is due to tamoxifen resistance: nationwide survival data in Korea-a report from the Korean Breast Cancer Society. *J Clin Oncol*, 25(17), 2360-2368.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 Rev*, 84, 191-215.

Budden, L. (1995). Young women's breast self-examination knowledge and practice. *J Community Health Nurs*, 12(1), 23-32.

Budden, L. (1998). Registered nurses' breast self-examination practice and teaching to female clients. *J Community Health Nurs*, 15(2), 101-112.

Budden, L. B. (1999). Student nurses' breast self-examination health beliefs, attitudes, knowledge, and performance during the first year of a preregistration degree program. *Cancer Nurs*, 22(6), 430-437.

Champion, V. L., & Scott, C. (1997). Reliability and validity of breast cancer screening belief scales in African American women. *Nurs Res*, 46(6), 331-7.

Cohen, J. (1977).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New Jersey.

Han, Y., Baumann, L. C., & Cimprich, B. (1996) Factors influencing registered nurses teaching breast self-examination to female clients. *Cancer Nurs*, 19(3), 197-203.

Luszczynska, A., & Schwarzer, R. (2003). Planning and self-efficacy in the adoption and maintenance of breast self-examination: A longitudinal study on self-regulatory cognitions. *Psychol Health*, 18(1), 93-108.

Powe, B. D., Underwood, S., Canales, M., & Finnie, R. (2005). Perceptions about breast cancer among college students: Implications for nursing education. *J Nurs Edu*, 44(6), 257-265.

Yoo, K. Y., Kang, D. H., Park, S. K., Kim, S. K., Shin, A. S., Yoon, H., Ahn, S. H., Noh, D. Y., & Choe, K. J. (2002). Epidemiology of breast cancer in Korea: Occurrence, high risk groups, and prevention. *J Korean Med Sci*, 17, 1-6.

# The Effects of a BSE(Breast Self-Examination) Education Program on Knowledge,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Level in Female Nursing Students\*

Yang, Young Hee<sup>1)</sup>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nkook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BSE education and practice on knowledge, self efficacy and performance in female nursing students. **Method:** The subjects consisted of 40 students from 2 nursing colleges. They responded to questionnaires that included knowledge,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of BSE within a 3-month interval. The experimental group was subjected to a 90 minute-educational session. Their knowledge of BSE was measured using Choi's tool and self-efficacy was measured using Champion and Scott. **Result:** Self-efficacy and frequency of BSE performance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while BSE knowledg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Nursing students don't put their knowledge into practice. This fact suggests that changing a behavior needs something more than knowledge. In this study, the BSE education had an effect on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Therefore, practical education needs to be reinforced for nursing students to perform BSE for their own health and to be able to demonstrate it for clients.

**Key words :** Breast self-examination, Self-efficacy, Nursing students

\* 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 fund of Dankook University in 2006.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ang, Young Hee

Department of Nursing, Dankook University

San 29, Anseodong, Cheonan, Chungnam 330-714, Korea

Tel: 82-41-550-3881 Fax: 82-41-565-6167 E-mail: hanul96@dankook.ac.kr